



고공강하·사격·축구... 군인들의 평화 올림픽

세계 120여개국 8700여명 참가 11일까지 24개 종목 메달 겨뤘

전 세계 120여개국 8700여명의 군인들이 지구 상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평화를 기원하며 펼치는 스포츠 대전(大戰)이 시작됐다.

육(陸)·해(海)·공(空)을 넘나드는 지구촌 군인들의 스포츠 축제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2일 경북 문경에서 개막, 11일까지 포항,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예천 등 8개 시·도에서 열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전 세계 군인들의 '평화 축제'...역대 최대 규모 =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 주관으로 4년 마다 열리는 '군인 올림픽'으로, 지난 199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회 대회가 치러진 뒤 올해가 6회째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연합국 군인 간 상호 우의를 다지고자 체육대회를 열었던 게 시발점으로, 1948년 프랑스, 덴마크, 베네룩스 3국 등 총 5개국이 모여 CISM을 출범하면서 대회의 외형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84개국에서 4017명이 참여했던 첫 대회 이후 참가국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올해는 120여개국 7500여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 대회로 치러진다.

◇24개 종목 중 '군인 특화' 종목 눈길 = 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치러지는 종목은 총 24개로, 올림픽 종목 위주인 19개 종목 외에 각군의 특성에 맞는 육군 5종, 공군 5종, 해군 5종, 오리엔티어링, 고공강하 등 5개 군사 종목도 함께 치러진다.

특히 실제 군인들의 훈련 내용을 옮겨다 놓은 듯한 생소한 종목들은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는 쓸쓸한 볼거리를 제공할만 하다.

육군 5종의 경우 엠티러 쏘(복사) 자세에서 10분 동안 10발을 300m 거리의 전자표적에 사격하는 소총사격종목이 있는가 하면, 수류탄 모양의 투사물을 이용해 표적에 정확히 던지거나 멀리 던지는 수류탄 투척 경기도 열린다.

경북 영주의 소백산맥에서 펼쳐지는 오리엔티어링 대회도 재미있다. 참가자들에게는 지도와 나

침반을 주고, 출발점에서 통과지점을 지나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게 과제다. 개인 중거리, 개인 장거리, 단체경기, 릴레이 등 다양하게 치러진다.

낙하산을 통한 적진 침투를 가상해 지상 1만 피트에서 뛰어내리는 고공강하 경기는 영화를 보는 듯한 아찔함을 선사한다. 목표지점에 얼마나 가깝게 착지하느냐 여부나 턴(원면 360도 회전)과 루프(중면 360도 회전)를 공중에서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 여부로 종목을 나눠 평가 방식이 다르다.

한국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278명(남자 227명, 여자 51명)이 참가해 종합 3위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국내외 스포츠스타 보는 재미도 = 국내 스포츠 스타 등 특급 스포츠들이 참여하는 경기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우선, 한국 대표팀에서는 축구 대표팀의 원톱 스트라이커 이정협 병장과 지난 4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사상 최초로 군인 신분으로 우승한 허인회 일병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50m 소총복사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율빛나(24) 중사, 여자 축구 대표팀 사상 첫 센추리클럽(A매치 100경기 이상 출전)에 가입한 권희는 중사도 대회에 참여한다.

해의 선수로는 단연 수영 종목의 닙퍼타오(중국·22)에 관심이 뜨겁다. 중국 인민해방군 소위인 닙퍼타오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수영 4관왕(남자 자유형 50m·100m·혼계영 400m·계영 400m)에 빛나는 중국 수영의 차세대 스타다.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이탈리아 공군 상병 마우로 네스폴리(28), 2013년 레슬링 세계선수권대회 그레코로만형 남자 96kg급 금메달리스트 러시아 육군 중위 니키타 멜니코프(28), 프랑스 공군 상병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50m 자유형 금메달을 목에 건 프랑스 수영의 '간판스타' 플로랑 마나우두(24)도 눈길을 사로잡는 스타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기 내려놓고 우정 쌓는 공간 '2015 세계 평화광장'



문경시 국군체육부대 내 메인스타디움 인근에 조성된 '2015 세계평화광장'.

새천년종합건설이 조성

관광객 몰리는 대회 랜드마크

문경에서 열리는 세계 군인체육대회는 전 세계 군인들이 펼치는 스포츠 대전인 만큼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 주변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특히 개·폐회식이 펼쳐지는 문경시 국군체육부대 내 메인스타디움 인근에 조성된 '2015 세계평화광장'은 조성 의미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메인스

타디움 인근에 위치,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직위원회 안팎에서는 이번 대회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공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평화광장은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주관하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 134개 회원국가의 군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스포츠를 통한 우정'이라는 표어 아래 평화를 기원하는 스포츠 축제를 펼친다는 의미를 담아 세계 지도 형태로 조성됐다. 134개국 국가가 광장에 게양돼 있고 국가 상단에

LED 점등 기능 뿐 아니라 평화광장 내 키오스크 및 부스를 마련하고 국가(國歌) 연주 기능까지 포함시켜 방문객이 손쉽게 회원국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썼다.

군인들이 자기 나라의 정복(군복)을 차려입고 참가하는 개막식이 열리는 메인스타디움 인근에 조성된 만큼 대회 기간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문경시 측은 예상하고 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구촌 스포츠 축제 성공 개최에 힘 보태 뿌듯"

정인재 새천년종합건설 회장

"평화 기원 위해 국방부에 기증"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전 세계 군인들이 모여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되고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지구촌 스포츠 축제의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돼 영광입니다"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기념하는 '2015 세계평화광장' 조성사업을 맡은 정인재(69·사진) 새천년종합건설(주) 회장은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전 세계 군인들이 '스포츠를 통한 우정'이라는 표어 아래 인류애를 되새기는 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문경시 국군체육부대 내 메인스타디움 인근의 세계평화광장 조성공사를 시공한 뒤 대회 성공 개최 및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국방부에 선뜻 기증했다.

그는 "공병장교(ROTC 7기) 출신으로 국가 SOC 사업에 자주 참여하다 보니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적인 행사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종합 스포츠 대회로는 올림픽, 유니버시아드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규모가 큰 지구촌 최대의 군인 축제인데, 대회 개최를 통해 전 세계 평화를 염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조성공사를 맡은 배경과 국방부에 기증하게 된 사유를 설명했다.

정 회장은 조화와 화합을 강조하면서 협력업체와 신뢰관계를 확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 오는 등 건설한 경영 활동으로 전국품질경영대회 대통령 표창(1993·1996년), 건설기술상(1997년), 자랑스런 전남대인상(2010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보성 출신인 정 회장은 지난 2001년 새천년종합건설 회장으로 취임하기까지 건설사 엔지니어·임원, 부사장 등을 지내는 등 54년간 정통 토목 건설인의 길을 걸어왔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초대 회장, 전남대 총동창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천년종합건설은?

토목분야 전문...지역의 알짜 건설사

새천년종합건설(주)은 창사 이래 꾸준히 성장해 온 지역의 '알짜' 건설사로 알려져 있다.

건설업계의 경우 경기 침체 등으로 매년 이뤄지는 시공능력 평가 순위 결과, 전년도에 비해 순위가 하락하는 건설사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한 차례도 순위가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트렌드나 외형적인 수치 실적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 민간 부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업비 80% 이상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만 참여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시공능력(약 1500억) 평가 순위 139위 건설사로,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주제관·한국관 등을 비롯, '토목공사의 꽃'이라는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 등을 맡아 진행하는 등 토목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파트 건설 사업 등 민간 부문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전국 40개 지역에서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목표 백련지구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 김대성기자 bigkim@



낙하산을 통한 적진 침투를 가상해 지상 1만 피트에서 뛰어내리는 고공강하 경기는 영화를 보는 듯한 아찔함을 선사한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 제공>

명품 보성 컨트리클럽

국내 최초

골프동호회 카드 출시!!

선착순 100구좌 한정 판매

지금부터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세요!

무기명 1팀-에메랄드카드, 무기명 7팀-토파즈카드

대상 골프동호회

- 동창회 동호회
- 기업체 동호회
- 인터넷 동호회
- 스크린 동호회
- 골프연습장 동호회
- 기타 각종 동호회

동호회 토파즈카드

1,000만원 1일 7팀 사용가능
 승수기(4월~11월) - 그린피 주중 30% / 일요일 25% 할인
 비수기(12월~3월) - 그린피 주중 40% / 일요일 30% 할인

보성CC 에메랄드카드

1,000만원 1일 무기명 1팀 사용
 그린피 주중 40% / 주말 30% 할인

보성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
www.bosungcc.co.kr

상담 문의: 광주사무소 062.654-0711
보성CC 061.804-1046